

# 민주통신

http://iloveKT.org/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희망의 빛이 되는 민주통신이 되겠습니다.  
**KT 전국민주동지회**

제28호 2013년 4월 발행처 | KT 전국민주동지회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0-10 TEL | 02-701-0070 FAX | 02-704-4441

## 노동조합비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 그것이 알고 싶다.

조합원이 내고 있는 노동조합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노동조합은 올해부터 감사보고서를 각 지부실에 책자로 비치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많은 조합원들의 요구처럼 문서파일로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책자로나마 공개를 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동지회를 비롯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회계년도 조합비 총액은 약 79억원이며 월평균 조합비는 6억6천만원, 조합원 1인당 연간 조합비는 320,400원, 그리고 조합원 1인당 월평균 조합비는 26,700원이다.

한편 사업별 배정내역을 보면 특별회계(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재정자립기금) 적립금이 17억339만원(21.43%), 일반회계(임단투대회비, 정책연구비 등) 적립금이 10억715만원(13.48%), 중앙본부비가 25억9,945만원(32.70%), 지방본부비(지부활동비 포함)가 25억7,456만원(32.39%)으로 편성되어 있다. (2페이지 총괄현황표 참고)



### 임단투대회비 1 억원?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과연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길래 연간 8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는지 선뜻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다. 특히 중앙본부는 애초 배정되었던 26억원을 2억원이나 초과하여 총 2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 중 임단투대회비로 1억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명시한 부분은 낮간지럽게 만든다. 언제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임단투를 한적이 있는가? 한편 중앙본부가 지출한 28억원의 내역을 보면, 조직관리비 2억원, 직무판공비 2억7천만원, 대외협력비 1억7천만원 등 대부분의 예산이 소위 '조

직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동조합 간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예산이 사용된 것이라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조합원들이 느끼기에는 노동조합이 그 '돈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투명한 감사를 위해 제안한다.**

한편 과연 제대로 조합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보다 더 투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들이 매년 상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는 것이 현재의 방식인데, 평조합원들 중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감사위원으로 직접 조합비 지출을 감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간부들의 실천활동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가에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어야 조합비 지출이 아깝다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비가 아깝지 않기 위해서**

현재 조합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은 노동조합이 중심을 잡고 회사에 맞선 강력한 투쟁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천도 없으면서 막대한 조합비를 사용하는 조합간부들의 모습은 조합원 입장에서 보자면 kt에서 배타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고연봉을 챙기고 있는 낙하산 인사 무리들과 다를바 없이 느껴지는 것이다..

어쩌면 노동조합에 대한 체념과 조합비 사용에 대한 무관심을 1%의 특권세력들은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항상 조합원이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며 조직하고 투쟁 할 때만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변화한다. 민주동지회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피와 같은 조합비가 허투로 쓰이고 있는 않은지 조합원과 함께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자!.. 이제 함께 외쳐 보자!

“일(투쟁) 하지 않는자여!(조합비) 먹지도 말라!”

**3. 총괄현황**

**가. 현 황**

2012. 12. 31 현재

구 분	인원 및 금액	비 고
○ 2012회계년도 조합비총액	7,948,933,010	○ 2012년 1월 - 12월 조합비 수입
○ 현재 조합원수	24,806	○ 2012년 12월 31일 현재
○ 월평균 조합비	662,411,084	○ 2012년도 조합비수입 / 12
○ 1인 평균 조합비	26,704	○ 월평균 조합비 / 조합원수

**나. 수입 및 지출 총괄**

항 목 별	금 액	비 고
○ 2011년 이월금	23,168,918,081	○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 2012년 수입총액	8,931,773,440	○ 2012년 1월 - 12월 수입총액(자료 1)
- 조합비 수입	7,948,933,010	○ 조합비 수입(자료 2, 2-1)
- 이자 수입	520,374,149	○ 특별 이자수입(자료 2-2)
- 기타 수입	462,466,281	○ 수익사업 이익금 등(자료 2-3)
○ 총 액	32,100,691,521	○ 이월금 + 수입총액
○ 2012년 지출총액	7,908,657,325	○ 2012년 1월 - 12월 지출총액(자료 3)
○ 잔 액	24,192,034,196	○ 2012년 13월 31일 잔액(시재금)
○ 부동산 및 유가증권	5,943,932,604	
○ 부채(부동산 보증금)	550,000,000	○ 상가 보증금(참월도 2실)
○ 조합비 총액	29,585,956,800	

**다. 사업별 배정내역**

구분	항 목 별	금 액	비율(%)	비 고
수입	○ 조합비 총 수입	7,948,933,010	100.00	○ 조합비 수입총액
	○ 특별회계 적립금	1,703,392,000	21.43	
	○ 일반회계 적립금	1,071,531,010	13.48	○ 예산초과분 포함
	○ 중앙본부비	2,599,450,000	32.70	
	○ 지방본부비	2,574,560,000	32.39	○ 12개 지방본부 운영비 및 지부활동비

▲ 노동조합비 총괄현황 - 연간 79억원의 조합비가 집행되고 있다. ( 전체 파일은 ilovekt.org 게시판에 올려져 있음)

## 4. 수입 및 지출 결산서

2012. 12. 31 현재

회계구분	예산과목명	2012 예산 승인액	수입			2012 예산 지출액	연말이체	집행잔액	
			전년도이월	금년도수입	계				
특별회계	협의기금	559,779,362	485,508,362	74,717,514	560,226,876	-	-	560,226,876	
	신분보장기금	217,898,288	143,628,288	74,426,549	218,054,837	-	-	218,054,837	
	재정자립기금(원금)	22,573,284,753	21,018,432,753	2,146,828,650	23,165,261,403	2,101,354,337	- 895,067,761	21,958,974,827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급단체비	266,010,269	191,740,269	74,460,860	266,201,129	10,528,090	-	255,673,039
		임단투대회비	479,684,171	465,414,171	74,642,909	480,057,080	111,231,700	-	368,825,380
		권역대의원비	330,117,165	226,139,165	104,142,771	330,281,936	113,872,900	-	216,409,036
		지방분부대회비	114,627,798	55,211,798	58,449,582	114,661,380	55,045,000	-	59,616,380
	홍보회	강가성리비	176,213,154	87,089,154	104,941,210	192,030,364	21,751,700	-	170,278,664
		회칙출납금	161,850,856	87,580,856	74,372,678	161,953,534	7,008,830	-	154,944,704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	175,083,780	100,813,780	74,368,692	175,182,672	104,325,620	-	70,857,052
		선거문열비	-	-	14,395	14,395	-	-	14,395
	예산초과분	예산초과분	-	-	895,067,761	895,067,761	-	895,067,761	-
	지방본부비	지방본부비	2,595,174,646	20,614,646	2,574,701,138	2,595,315,784	2,580,061,713	-	15,254,071
	읍장본부비	읍장본부비	2,946,193,839	346,743,839	2,599,638,531	2,946,382,370	2,803,487,435	-	142,894,935
	합계		30,595,918,081	23,168,918,081	8,831,773,440	32,100,691,521	7,908,667,325	-	24,192,024,196

회계구분	예산과목명	전년도이월	예산변동내역			현재	비고
			증가	감소	계		
특별회계	재정자립기금	부동산	5,160,149,500	260,000,000	260,000,000	5,420,149,500	
		유가증권	523,783,104	-	-	523,783,104	
합계		5,683,932,604	260,000,000	-	5,943,932,604		

▲지출내역중 '임단투대회비' 항목이 눈에 띈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단투대회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임단투대회를 했기에 일억원이 넘게 들었을까?

## 7. 중앙본부비 수입 및 지출내역

2012. 12. 31 현재

관	예산 과목명		예산 승인액 (A)	확정 잔액	수입(B) (이월금+배정액)	지출 (C)	배정액대비 잔액(B-C)	승인액대비 잔액(A-C)	승인액대비 지출비율(C/A)	
	항	목								
문 열 비	인건비	인건비	346,700,000	32,28	346,700,000	331,311,030	15,388,980	15,388,980	95.56	
	유지비	소모품비	16,800,000	0.60	16,800,000	16,796,970	1,030	1,030	99.96	
		도서일선본비	15,780,000	0.56	15,780,000	14,366,295	1,423,705	1,423,705	90.98	
		비품비	15,800,000	0.55	15,800,000	13,529,780	2,270,220	2,270,220	85.63	
		통신비	9,600,000	0.28	9,600,000	8,929,517	670,483	670,483	93.02	
		차량유지비	54,000,000	1.88	54,000,000	52,566,898	1,444,342	1,444,342	97.33	
		시설비	14,850,000	0.66	14,850,000	14,299,330	550,600	550,600	96.29	
	보수유지비	제세유지비	21,500,000	0.91	21,500,000	20,986,730	514,270	514,270	97.61	
	추경배기비	추경배기비	291,090,000	9.56	291,090,000	290,017,790	1,042,240	1,042,240	99.64	
	회계비	회계비	72,000,000	2.46	72,000,000	70,977,030	1,022,980	1,022,980	98.58	
	광비	광비	10,800,000	0.41	10,800,000	8,520,330	2,279,680	2,279,680	78.89	
	합계		868,890,000	30.74	868,890,000	842,281,150	26,608,850	26,608,850	96.94	
	사 업 비	조직사업비	조직관리비	215,650,000	5.40	215,650,000	211,662,984	3,987,416	3,987,416	98.15
		조사및연구비	조사및연구비	81,800,000	2.30	81,800,000	81,530,000	270,000	270,000	99.67
직무활동비			사무관리비	288,000,000	9.66	288,000,000	273,510,030	14,489,970	14,489,970	94.97
교육홍보		교육비	168,000,000	4.83	168,000,000	167,604,791	395,209	395,209	99.76	
		홍보비	72,700,000	4.03	72,700,000	72,680,200	9,800	9,800	99.99	
행사활동비		행사활동비	186,600,000	7.37	186,600,000	186,459,980	140,010	140,010	99.92	
		복지활동비	복지활동비	242,000,000	4.70	242,000,000	241,361,460	638,560	638,560	99.74
행사활동비		행사지원비	229,000,000	5.30	229,000,000	219,904,820	99,180	99,180	99.96	
사회공헌사업비		사회공헌활동비	208,000,000	16.54	208,000,000	199,051,610	88,988,390	30,968,390	60.78	
대외		국내대외	96,000,000	2.54	96,000,000	97,470,700	8,529,300	8,529,300	91.12	
		국외대외	160,000,000	3.18	160,000,000	135,681,700	24,138,300	24,138,300	84.91	
기타사업비		기타사업비	66,000,000	1.48	66,000,000	65,225,910	774,090	774,090	99.91	
합계			2,024,750,000	67.72	2,024,750,000	1,931,333,795	93,416,215	93,416,215	95.39	
예산외	예산외	예산외	52,553,830	1.54	52,553,830	29,572,500	22,981,330	22,981,330	56.84	
합계			188,531		188,531			-		
총계		2,948,103,830	100	2,948,382,370	2,803,487,435	142,894,935	142,706,404	95.18		

▲중앙본부의 사용내역 대다수가 관공비 등 조합간부들의 활동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과연 그들은 그 '돈값' 을 하고 있는 걸까?

## 회사와 노동조합은 무엇이 두려워 조합원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가

KT내에서 내부 비판세력의 목소리를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KT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용지에는 ‘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에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청하는 서명’이라고 쓰여 있었다. 각 지부장에게 전달된 조직국장의 메일을 보면 이 서명은 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전송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며, ‘전체 조합원’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즉 조합원들에게 억지로 받은 서명을 근거로 민주동지회가 매월 발행하는 ‘민주통신’ 등 각종 표현물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다.

간행물배포를 이런 식으로 가로막는단 말인가? 한편 그동안의 노동조합의 행태를 볼 때, 이번 서명활동은 당연히 회사와의 교감 속에 진행되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부장들의 서명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일부 지사에서는 관리자인 팀장이 직접 서명용지를 들고 조합원인 팀원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부당한 노조활동개입이며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이다. 이런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 찍히면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에 응했던 것이다.

### ● 치졸한 행태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내부비판, 조합활동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가로막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정말 남부끄러운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어떤 노동조합에서 내부에서 활동중인 조합원모임의

### ● ‘진실’의 힘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도대체 회사와 노동조합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지난 2월 조직개편 때에도 어용노동조합은 숨죽이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을 때, ‘민주통신’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서의 조직개편의 본질을 폭로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맞서 싸워야 함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당시 ‘민주통신’의 경고는 이후 벌어진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각종 전환배치와 무자비한 상품할당 판매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 이전에도 ‘민주

#### <서명용지관련긴급공지>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직국장 이선규 입니다

민주동지회 및 KT새노조에 개인정보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서명용지 입니다. (문자메시지 및 E-mail전송관련)

조합원 모두 서명 받으시고(민주동지회,새노조 제외) 서명용지 원본은 4월 11일 (목) 까지 지방본부로 제출부탁 드립니다.

#### <서명용지 작성 예시>

지부장께서 순번1번에 반드시 서명 하십시오

2번부터 조합원에게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주소는 ○○시 ○○구 ○○동 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번지는 적지 마세요)



통신'은 회사의 성과급제도 개악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 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고 노동조합에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수용하여 회사에 맞서 싸워야 할 노동 조합이 치졸하게도 오히려 회사와 한 편이 되어, 진실을 폭로한 민주동지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 **변화를 이끌어낸 비판과 저항의 힘**

그러나 KT내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민주동지회를 비롯한 내부 민주세력이 끊임없이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민주동지회는 KT내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의 실태를 끈질기게 폭로하여 결국 2012년도에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일부 미지급되었던 무급휴일근무수당을 조합원들이 받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올해부터는 무급휴일근무의 경우 사내전산이 접속차단되는 조치를 회사가 도입하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불법적인 'CP(소위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폭로하고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각종 저항을 조직한 결과로 다수의 법원판결을 통해 CP 퇴출프로그램이 KT 본사의 지침에 의해 실행된 것임을 확인해내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 성과는 회사의 CP 퇴출프로그램이 무력화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회사와 노동조합에게는 민주동지회의 이런 활동이 그야말로 '눈엣가시' 였을 것이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성명까지 내며 어깃장을 놓았던 어용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들의 이런 행태를 조합원들에게 폭로해온 민주동지회의 활동이 미웠을 수는 있

**민주동지회 및 KT세노조에 개인정보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요구인들의 명단**

순번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서명
1	용길동	010-1234-4567	60.01.01	00시00동	싸인
2					
3					
4					

다. 그러나 그렇다면 자신의 행태를 반성하고 고치면 될 일이다. 오히려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노동 조합의 태도는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 **어떠한 탄압과 방해도 '진실'을 꺾을 수는 없다**

민주동지회는 노동조합이 현재 획책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서명동원을 통한 언론통제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민주세력들의 연대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이러한 탄압시도를 반드시 무력화시킬 것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뒤로 돌리려는 시도는 잠깐 동안은 효과를 보는 듯해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아무리 가리려 해도 조합원들의 마음 속까지 가릴 수는 없다. 조합원들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불만과 저항이 한 순간에 거세게 분출할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불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임무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민주동지회의 노력은 어떤 탄압과 방해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2013년 4월 10 일 **KT전국민주동지회**

# 직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얼마전 조합원들은 또 한 명의 직원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모지사 SMB지원팀장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인데, 고인은 원래 NSC에서 근무하다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지사SMB팀으로 전환배치된 후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다. 올해만도 벌써 재직자만 해도 3번째 벌어진 자살사망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kt에서 재직중 사망한 직원수는

29명에 달하며 명퇴자 중 58세 이전 사망자수는 23명 그리고 ITS 등 사내계열사 직원 사망자 4명을 포함하면 전체 56명이 2012년도에 사망하였다.

올해에도 사망자는 계속발생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4월 15일 현재까지 재직중 사망직원수는 6명, 명퇴자 사망자수 6명 등 총 12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 중 4명은 자살로 사망하였다. 사망자들 중 다수는 전환배치를 받고 적응하지 못해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직원들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KT직원 재직중 사망자 현황

사망자명	소 속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비 고
김 0 철 (남) 58세	수도권강북고객본부 파주지사 Manu고객2팀	2013.2.16	자 살	차량에서 운전중 발견
이 0 옥 (남) 52세	수도권서부고객본부 강화지사 rotation팀	2013.3.14	자 살	2011년 일한계후보 선거운동원
이 0 진 (남) 55세	강원고객본부 평강지사 Manu고객팀	2013.4.2	(갑전)수막사	전주에서 (갑전)수막 사망(산재)
이 0 형 (남) 56세	수도권강북고객본부 동대문지사 SMB고객1팀	2013.4.4	배 탈	
문 0 남 (남) 53세	전남고객본부 서광주지사 SMB고객1팀	2013.4.7	간 알	4/1일차 병가유격
박 0 석 (남) 58세	수도권서부고객본부 구도지사 SMB지원팀	2013.4.14	자살	금전전송입금(NSC)에서 1개월간 전환배치(3차례 전환배치 거부)
소 계 6 명				

2013년도 KT 퇴직자 사망 현황

사망자명	소 속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비 고
박 0 호 (남) 53세	대구NSC 권호팀	2013.2.6	자 살	2009.12월말 특별명퇴 이피드 15층에서 투신 자살
장 0 만 (남) 58세	서울북부마케팅단 용산지 사 고객서비스1팀	2013.2.8	교통사고	2009.12월말 특별명퇴
김 0 수 (남) 57세	대구마케팅단 대구지사 성주지점	2013.2.27	위 압	2009.12월말 특별명퇴
은 0 성 (남) 48세	서울남부마케팅단 계동지 사 고객컨설팅2팀	2013.3.4	간 알	2009.12월말 특별명퇴
최 0 재 (남) 52세	충부내트워킹본부 대전NSC 교환팀	2013.3.26	방광암	2009.12월말 특별명퇴
장 0 석 (남) 58세	전남동부발전용국 순천분국	2013.4.4	심근경색	2003.10.1.자 특별명퇴 동산중 사망
소 계 : 6 명				

명퇴자 중 사망자는 대부분 2009년12월말 특별명퇴자(5,992명)들 중에서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텔레콤에서 민영화 이후 정리해고와 대규모 전환배치로 3년간 자살자가 60명을 초과하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을 지난 민주통신(2012.8월호) 지면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나 KT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조합과 회사측은 지난 2006년 CP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노사합동실태조사를 벌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직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살인의 공범이 됨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살고 봐야 할 것 아닌가?

## KT사망자 전체 통계

-2006년부터 2013.4월15일 현재까지-

(KT노동인권센터에서 확인된 재직자와 명퇴자 및 사내계열사 포함 사망자 수)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합 계	19	26	36	34	41	43	56	12	267
재직중사망자	11	16	20	19	17	16	29	6	134
명퇴자사망자 (58세이하)	8	10	16	14	23	19	23	6	119
사내계열사				1	1	8	4	0	14
돌연사 (뇌졸중, 심장 마비 등)	4	9	7	11	14	15	13	1	74
자 살	0	2	2	3	3	6	3	4	23
각종 압 (억령병포함)	9	10	17	14	17	15	23	5	110
기 타(사고사 및 기타 질병)	6	5	10	6	7	7	17	2	60

※CP비밀퇴출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시행됨

# 민주동지회 노조 규약/규정 개정 전담반에 통합투개표 요구

kt전국민주동지회[의장 김석균]는 노동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3년4월8일부터 11일까지 전담반을 가동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비밀 자유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본부별 통합투개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2013년4월10일자 내용증명으로 정운모 위원장과 전담반 앞으로 발송하였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회사의 개입과 압박을 쉽게 하기 위해 투개표소를 최대한 잘게 쪼개어 운영해왔고, 이에 따라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진행돼 왔음은 조합원들 또한 익히 알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시 총 유권자수가 약 4천만명에 투표소가 13,542개소(1개 투표소당 평균 3,000명 투표), 개표소가 252개(1개 개표소당 평균 16,000표) 정도인데 반해 kt노조 투개표소는 조합원(유권자)수가 1/168에 불과함에도 지난 노조 위원장선거(2011년12월) 기준으로 3배나 많은 698개에 달했다. 조합원수가 20명 미만인 투표소가 227

민주동지회 통합투개표요구 최근 내역

통합투개표요구일자	수신처	비고
2010년 9월 1일	김구현 위원장	민주동지회 의장(조태욱) 명의 공문 내용증명 발송
2010년 9월 27일	김구현 위원장	
2011년 6월 9일	김구현 위원장	조합원 33명 통합투개표요구서 내용증명 발송
2011년 6월 10일	각 지방본부 위원장	
2013년 4월 10일	정운모 위원장	민주동지회 의장(김석균) 명의 공문



개소에 달할 정도였다. 물론 소규모 투표장에는 거의 참관인조차 없으니 사실상의 공개투표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대다수 조합원들은 통합투개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노조선거는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받아 안고 통합투개표를

실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요구서와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 있으나 집행부는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다. 이제 조합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이며,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 소식 故 김낙성 동지와 故 김현규 동지 추모제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故 김낙성 동지의 19주기 추모제가 고인이 잠들어 있는 파주 기독교 묘지에서 2013년4월13일 가족들과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또한 작년 4월13일 사망한 故 김현규 동지의 1주기 추모제가 화성 효원 납골공원에서 가족과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